

인과성과 합리성*†

이 작 용

【요약문】 이 논문은 유형 유물론의 인과적 논변과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 인과성, 곧 주관적 인과성의 한 존재론을 주장한다. 의욕들과 결심들 같은 의지적 마음은 능동적이다. 반면에, 욕망들과 믿음들 같은 정서적·인지적 마음은 수동적이다. 의지는 욕망과 믿음의 단순한 법칙적 결과가 아니다. 행위자가 개입한 합리적 결과이다. 따라서 의지 상태는 인과적 유형화를 갖지 못하므로 물리적으로 환원될 길이 없어 보인다. 구조적인 기초원자들이 연합해 움직이는 어떤 원자 모임을 행위자로 본다면, 행위자 원인은 하향적 인과를 함축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형 유물론 논변은 환원주의를 함축하지 않는다. 환원주의는 개념적 정의를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과의 주관적 개념, 행위자 개념이 유형 유물론을 배제하지 않는다.

【주요어】 인과성, 합리성, 행위자 원인, 물리주의, 환원주의

* 접수완료 : 2009. 2. 5 / 심사 및 수정완료 : 2009. 2. 16

† 이 논문은 2009년 2월 3일 <분석철학회>에서 발표한 초고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흥미로운 논평과 질의를 해주신 분들과 적절한 심사평을 보내주신 익명의 두 심사 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I. 인과적 설명과 합리성

합리적 설명에 관한 오늘의 한 표준 모형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욕망과 믿음의 인과적 결과로서 설명된다는 것이다. 늦게나마 지금 글을 쓰는 나의 행동은 논문을 완성하려는 나의 욕망과 지금 글 쓰지 않으면 논문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나의 걱정스런 믿음 때문에 일어난 행동이라는 식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그것은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서술되고 평가된다.

그러나 대뜸 본질적인 다음과 같은 개념적 의문이 든다. 나는 나의 욕망과 믿음에 수동적이다. 지각과 믿음과 같은 인지의 마음과 슬픔과 욕망과 같은 정서의 마음은 통상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에 수동적이지 능동적이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개념 그대로 우리가 행한, 일으킨 동작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행동이 우리가 일으키지 않은 정서적·인지적 마음의 결과일 수 있단 말인가? 행동은 우리가 행하려 하고, 행한 동작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행동은 의도적 행동이다. 그럼, 앞 물음은 이런 물음이다. 수동적 마음인 욕망과 믿음이 능동적 마음인 의도를 어떻게 결과할 수 있는가? 수동적 마음이 능동적 마음을 결정한다는 것은 모순적 어폐가 아닌가.

인과(causation)는 결정(determination)의 개념이다. 현재 사건의 원인은 지나간 사건이라는 것은 과거사가 현재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의도와 의욕은 결심, 마음의 결정(decision)과 다름이 없는 의지이며 행위자의 능동적 힘을 함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나간 욕망과 믿음의 상태, 사건이 그 능동적 의욕을 인과적으로 결정한다고 의미롭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인과적 결정의 과정에서 행위자의 존재론적 의미와 역할이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모순적인 욕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금연과 흡연의 욕망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지금 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피우지 않을 수도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금연과 흡연을 동시에 의욕하거나 행할 수는 없다. 우리의 의욕, 의향, 의도 및 결심, 작심 등의 의지적 마음은 모순적일 수 없다. 사실적인 이 개념적 반성은 욕망과 믿음에서 행동에 이르는 인과적 과정에는 합리화하는 자기반성적인 행위자의 의욕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제 인과적인 합리적 설명 모형이 전제하는 다음과 같은 인과관계를 놓고 논의를 더 진행해 보자.

- ① a의 욕망(논문을 완성한다)
- ② a의 믿음(지금 글을 쓰지 않으면 논문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 ③ a의 의욕(지금 글을 쓴다) 그래서,
- ④ a의 행동(지금 글을 쓴다)

‘그래서’는 ‘인과’를 뜻하지만 괄호 속의 마음의 의미 내용 때문에 ‘논리적 함축’을 뜻하기도 한다. 그 덕분에 이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은 합리적인 설명이기도 하다. ‘인과’를 ‘→’로 표시해 보자. 그럼, 그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이 기호화할 수 있다.

(①&②) → ③ → ④

앞의 논의를 살펴보자. 어떤 의미에서 ①, ②, 그리고 ④의 사건에서도 사건 기술구에 등장한 a는 사건 발생의 장소표지의 의미만을 갖는다. 그러나 ③의 a는 그 사건을 일으킨 부분적 원인자의 의미도 갖는다. 나아가서, 욕망과 믿음에 대한 자기반성과 숙고, 그리

고 의욕에 이르는 합리화 하는 자의 의미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반영한 논리적 인과진술은 다음을 나타낼 것이다.

(①&②&a) → ③ → ④

나는 이것이 인과적 흐름의 물질세계의 한 곳을 점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특별한 물체를 행위자로 서술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논리적 형식이라고 생각한다.¹⁾ 그러나 이것의 본질적 문제가 만만치 않다. 이것은 인과의 법칙적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물리 체계에 하향적(downward)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행위자이면, 그것은 우리의 몸인가, 두뇌인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모습의 무엇인가?

II. 속성, 실재론과 유명론

어떤 뜻에서 실체유물론은 속성유물론까지 함축한다. 실체유물론에서 세계는 물질적 사물, 즉 물체들로만 이루어진 가장 포괄적인 물체이다. 거기서 우리와 같은 행위자는 합리적 정신에 따르는 물질적 운동, 즉 행동을 하는 특별한 종류의 인물(人物)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한 마디로, 행위자는 정신적 물체인 셈이다. 그런데 ‘정신성’이 ‘비물질성’일 수 있을까? 존재론적으로 보면, 그 대답은 아니오이다. ‘비물질적 물체’는 모순이기 때문이다. 물체는 물질적 속성을 지닌 사물을 뜻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정신적 물체일지라도 그 ‘정신적’이 모순없이 ‘물질적이지 않은’의 의미를 지닐 수는 없을

1) 인과적 간격을 메꾸는 자기(self)의 역할을 시종일관 강조하는 서얼(Searle, J., 2001) 참조

것이다.

이 개념적 논리는 단순명쾌하다. 그럼에도, 속성유물론을 옹호하는 훨씬 섬세하고 정교한 논변의 개발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개념적 논리에 밝은 분석철학자의 상당수가 여전히 왜 심물 속성이 원론을 선호하고 있는가? 나는 그 까닭이 속성유명론(唯名論)의 형이상학을 선호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속성유명론의 주류는 물체의 속성들은 그 물체에 대한 술어들과 개념들의 적용의 파생적 투영들일 뿐이라고 한다. 그것들은 물체의 실질적 부분들이나 성분들이 아니라고 본다. 정신성을 언어적 특성으로 파악한 D. 데이빗슨의 다음 말을 들어보자.

“내가 보기에 정신적인 것은 존재론적이 아닌 개념적인 범주이다. 정신적 대상들과 사건들은 동시에 물리학적, 생리학적, 그리고 화학적 대상들이고 사건들이다. 한 사건, 이를테면 한 의도적 사건에 대해 정신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론적 지향성이란 표지를 갖는 어떤 어휘를 빌어 우리가 그것을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을 그저 말하는 것일 뿐이다.”²⁾

데이빗슨에게 세계는 구체적인 사물들과 사건들로 이뤄진, 그리고 그 인과관계들로만 맺어져 있는 세계이다. 데이빗슨의 존재론에서 사물들과 사건들은 시간 공간상의 특정한 곳을 점한 특수자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결속시키는 유일한 실질적 관계는 오로지 인과관계뿐이다. 거기서 속성들은 구체적 특수자들의 추상적 모습들, 또는 성분들의 의미를 존재론적으로 갖지 못한다. 속성들이 언어적 투영들이면, ‘정신적’은 언어의, 술어들이나 개념들에 붙는 수식어이다. ‘정신성’은 언어적 술어들과 개념들에 대한 이차적 술어와 개념인 셈이다. 그러니까, 기초적 어법은 정신적 ‘술어’ 또는 ‘개념’이지 정신적 ‘속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신성은 비물질성이

2) Davidson, D.(1987), p. 46.

다. 정신언어(心語)는 물질언어(物語)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리학, 생리학, 화학 및 생리학의 언어, 기초 어휘들과 개념들은 일상심리학의 그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신적 개념이 물질적 개념일 수 없으면, 속성유명론에 따르면 정신적 속성도 물질적 속성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속성의 실재론과 유명론은 존재론적 시야를 확보하는 원론적 문제를 제기한다. 다음의 기초적 사실을 놓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존재론적 분석의 두 가지 시도를 보자.

a는 P이다.

- ① a는 P의 한 예(instance)이다.
- ② a는 P를 예화한다.

분석문의 'P'는 실재론처럼 한 속성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거북하지만, 유명론처럼 그것을 그냥 한 술어로 볼 수도 있다. 사건이 사물처럼 구체적 특수자이면, 유명론의 관점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유명론에서 앞의 'a'는 사물뿐 아니라 사건을 자연스럽게 지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재론에서 특수자 a는 수많은 속성들의 구체적인 한 보기일 수 있다. 구체성(具體, concrete)의 말뜻이 잘 살아 있는 것이 실재론인 셈이다. 분석문 ②는 김재권의 사건론에 따르면 a에서 일어난 한 사건, P 속성의 예화를 진술하는 것일 수 있다.

유명론자가 실재론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속성들 하나 하나를 의미 있게 변별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객관적 표준이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³⁾ 다시 말하면, 'x=y'의 변항에 의미 있게 속성들을 대입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속성들은 시공간적 세계의 단

3) Quine, W. V. O.(1969) 23쪽에 등장한 교훈 "No entity without identity"를 되새겨 보라.

위들일 수 있는 외연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실재론은 유명론자의 이런 걱정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통용적인 유력한 한 방법은 인과적 능력이나 역할을 빌어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속성의 차이는 그 인과력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사물이나 사건의 인과력의 원천이나 출처가 그 속성들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실재론과 유명론은 인과관계를 보는 존재론적 시선도 대체로 사뭇 다르다. a가 b의 원인이라고 하자. 실재론자는 a의 무슨 속성이 b의 발생을 가져왔는가를 묻는 것으로 그 인과적 사실에 대한 해명과 설명을 피할 것이다. 실재론자에게 그것은 그 인과성의 존재론적 출처와 원천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러나 유명론자에게 그런 존재론적 궁금증은 생길 수 없다. 인과적 설명은 인식론적인, 또는 실용적인 관심을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대체로 유명론자는 인과적 진술의 의미론적 또는 인식론적 해명에 주안점을 두는 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오늘의 인과적 설명 모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데이빗슨의 인과관은 유명론자로서는 독특하다. 그는 사실-사실 또는 조건-조건의 진리조건문으로서 인과진술을 해명하는 당대의 유명론자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취했다. 그는 인과관계를 구체적 사건들의 외연적 관계로 보았다.

“개별적 사건들이 어떻게 기술돼 있던 상관없이 존재하는 관계는 인과관계와 동일관계뿐이다. 그런데 법칙들은 언어적이다. 사건들은 법칙들을 예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칙들을 빌어 설명되거나 예측될 수 있다. 단, 그 사건들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기술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이다.”⁴⁾

그래서 데이빗슨은 사건들의 변별기준, 또는 동일 여부가 인과관계의 동일함에 위치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사건속성 또는 사건유형의 실재론자는 법칙실재론자일 수도 있

⁴⁾ Davidson, D.(1980), p. 215.

다.5) 그렇다면, 속성들의 변별기준 또는 동일기준을 법칙관계의 동일항 여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속성의 동일성을 그 인과적 기능과 역할의 동일성에서 찾는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수한 인과적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인과적 역할, 더 정확히 역할유형은, 실은 인과법칙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Ⅲ. 결정론과 유물론 논변

다음의 대략적 결정론은 과학적 세계관의 기본 전제일 것이다.

<인과적 결정론>

모든 세상사는 지나간 세상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지나간 세상사의 차이가 없으면 현재 세상사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미시적 결정론>

모든 세상사는 그것을 이룬 더 작은 부분들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부분의 차이가 없으면 전체의 차이도 있을 수 없다.

인과적 결정론은 통시적(通時的)이고 미시적 결정론은 공시적(共時的)이다. 이 결정론은 세계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형이상학적 기초 전제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물의 존재와 속성을 띤 어떤 사물의 존재와 속성을 빌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띤 어떤 사물이 그 어떤 사물을 결정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이 결정론이 과학의 형이상학적 근거이면 다음의 결정론은 인문학의 근거일 것이다.

<행위자 결정론>

5) Armstrong, D.M(1983)은 법칙 실재론을 옹호한 대표적 저술가다.

모든 의욕과 행동은 행위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행위자의 차이가 없으면, 행동의 차이도 있을 수 없다.

행위자 결정론은 말뜻 그대로 행위자의 자유(自由)를 뜻한다. 인문학적 결정론이 과학적 결정론과 공존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신성이 물질성일 수밖에 없다는 비교적 정교한 유물론적 논변을 살펴보자. 미리 강조하지만, 모든 정신속성이 물질속성이라는 논변은 모든 정신속성이 물질속성으로 환원된다는 논변을 함축하지 않는다. 환원은 정신개념의 물질개념으로의 동화(同化)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실체유물론에서 모든 세상사는 물질사이다. 그런데 어떤 세상사는 정신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정신사는 물질사에 의해 실현된다. 그리고 모든 정신사는 물질사에 공시적인 수반적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실현논제와 수반논제는 속성이원론의 유물론자도 보통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아가서 다음 원리도 받아들인다고 하자.

<물질체계의 완결성>

모든 물질사의 원인은 지나간 물질사이다. 지나간 물질사는 지금의 물질사를 충분히 결정한다.

<중복결정의 금지>

모든 물질사는 과도하게 중복 결정돼 있지 않다.

그럼, 내가 보기에 가장 간략한 다음의 유물론 논변이 성립한다.

<속성유물론 논변>⁶⁾

- (1) 모든 정신사는 그 정신성에 의해 어떤 물질사의 원인이다.
- (2) 모든 물질사는 지나간 물질사에 충분원인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간 물질사의 그 물질성에 의해서이다.
- (3) 모든 물질사는 상이한 속성에 의해 과도하게 중복된 원인을

6) Papineau, D.(2002), pp. 17-8 참조.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4) 모든 정신성은 물질성이다.

내가 보기에 이 논변은 김재권의 수반논변과 설명적 배제논변보다 간략하다. 그럼에도 그 두 논변의 뜻을 융합한 설득력을 지닌 것이다. 새삼스럽게 중요한 것은, 이 논변이 인과성의 원천은 사건의 속성에 있다는 주장, 그래서 정신성의 실질적 의미는 그것이 인과성의 원천이라는 데에 있다는 주장에 근거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 근거적 주장을 데이빗슨 같은 유명론자는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 유물론을 건전한 논변으로 여기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논변방식과 무척 유사한 방식의 논변을 구사한 다음의 원자적 실재론도 그것 못지않게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 인과력이 실재성의 기준이라는 원리와 미시적 결정론의 원리를 융합하면, 어떤 의미에서 실재하는 것은 기초적 원자들뿐이라는 논변이 다음과 같이 주장될 수 있다.

<원자 실재론>⁷⁾

- (1) 한 물체의 인과력은 연합해 움직이는 그 구성 원자들의 인과력이다.
- (2) 한 물체가 미친 인과적 결과는 연합해 움직이는 그 구성 원자들의 인과력에 의해서이다.
- (3) 한 물체가 미친 인과적 결과는 과도하게 중복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 (4) 한 물체는 그 구성 원자들과 다른 별개의 물체가 아니다.

한 물체가 그 구성 원자들의 존재에 더 추가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그것은 존재론적 의미에서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재하는 것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연합해 있는 구조적 원자들뿐이다. 나

7) 이것은 Merricks, T.(2001)가 보인 중복결정논변을 활용한 것이다.

는 이 원자 실재론 논변이 건전할뿐더러 기초과학은 소립자 물리학이라는 사실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속성유물론 논변을 받아들이면서 이 원자 실재론 논변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 실재하는 것이 구조적인 기초원자들뿐이라면, 거시적 사물의 거시적 속성들도 실은 구조적인 미시적 기초속성들일 뿐이다. 기초원자들의 세계가 실질적이면, 그것은 원리상 양자역학의 세계와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과성은 기회(chances) 관련적인 불확정성을 지닐 것이다. 그렇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정된 유물론 논변은 건전하게 성립한다.

<유물론 수정논변>

- (1) 모든 정신사는 그 정신성에 의해 어떤 물질사의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 (2) 모든 물질사의 기회는 지나간 물질사에 의해 충분히 결정된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간 물질사의 그 물질성에 의해서이다.
- (3) 모든 물질사는 상이한 속성에 의해 과도하게 중복된 원인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 (4) 모든 정신성은 물질성이다.

IV. 환원과 행위자

행위자는 거시적 대상이다. 따라서 그 마음들도 거시적이다. 한 거시적 대상과 속성이 실은 구조적인 미시적 대상들이고 속성들이면, 한 정신적 속성도 실은 구조적인 미시적 물질속성들인 셈이다. 그렇더라도, 여기에는 한 정신속성이 한 물리속성과 어떻게 동일시되는지, 정신성의 물질성으로의 환원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다. 그런데 유물론이 뜻하듯이 거시/미시, 정신/물질, 전체/부분의 구분이 언어적이고 개념적인 차이일 뿐이지 존재론적

인 실질적 차이가 아니라면, 필요한 환원적 동일화의 실마리는 그 차이에 중립적인 개념의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이른바 ‘인과적 기능과 역할’의 개념이다. 우리는 이 마당에서 설명적 환원의 훌륭한 한 보기로서 김재권식의 다음 논변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환원적 설명>⁸⁾

- (1) a의 c 신경과동이 t 시각에 발생한다.
- (2) c 신경과동의 원인은 피부손상 같은 사건이고 그 결과는 쥘그림과 신음 같은 것이다. (a와 같은 인물에서)
- (3) 정의(definition): 고통스러움은 그 원인이 피부손상과 같은 것이고 그 결과가 쥘그림과 신음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 (4) a는 고통스럽다.

이 설명은 주관적 마음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설명 속에서 고통의 마음 상태(유형)와 c 신경과동(유형)의 환원적 동일화가 성공적으로 달성된다. 그런데 이 성공적 논변의 필수적 사항으로 등장한 셋째 전제의 인과적 정의가 바로 우리의 핵심적 문제 사항이다.

과연 모든 정신 개념이 인과적 기능과 역할에 의거한 그러한 기능적 정의를 가질 수 있을까? 인과적 역할은 유형적이고 일반적이다. 그것은 사례적이고 특수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의의 쟁점으로 삼은 의도, 의욕, 결심 및 작심과 같은 마음 유형은 기능적으로 정의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의 인과성을 의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그 역할이 일반화할 수 있겠는가이다. 그것은 유사한 일반적인 원인항과 결과항을 가질 수 없다. 원인항에 특수한 행위자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⁸⁾ Kim, J.(2005), p. 28 참조. 김재권에 관한 내용은 우리말 번역서(2007)와 논평서(2008) 참조.

행위자 원인의 도입은 결정론에 어긋나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R. 테일러의 다음 진술이 맞다고 생각한다.⁹⁾

“실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없는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라 보는 것이 낫겠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수행하는 모든 행위에서도 그가 행한 것에 대한 인과적으로 충분한 조건이 있다고 보는 것이 낫겠다. 이것은 결정론이지만, 때때로 자신의 행위를 시동하는(initiate) 행위자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들의 시동(始動)자라는 행위자 개념은 다음을 함축한다. 한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 있으려면, 그 행위의 원인으로서의 한 행위자에 대한 본질적 지칭이 있어야 한다.”

이 마당에서 다시 그 행위자가 존재론적으로 도대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기초 원자론에 따르면, 그 거시적 인물은 어떤 미시적 원자들의 모임일 것이다. 그 어떤 원자들을 벗어나서 그 모임이 따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은 어떤 기능을 충족시키려는 구조적인 원자들만이 실재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 몸을 이룬 어떤 원자들이, 아마도 두뇌를 이룬 어떤 원자들일 것 같지만, 마음의 작가(作家)이자 행동의 지휘자인 그 행위자를 이루는 것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실은 존재론적으로는 바로 그것들이 행위자이다. 물론 그것들은 세월 속에서 교체되고 변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의 인과적 흐름에 초연한 불변의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자의 실상(實相)은 돌고 돈다(輪回). 클레오파트라와 행위자를 이룬 원자들이 지금 나의 행위자를 이루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윤회적인 인과적 세계관에 정말 잘 어울리지 않는가.

한 행위자는 한 국가에 비유될 수 있다. 국가의 구성적 요소를 정부(政府), 백성, 영토라고 하자. 거기서 백성과 영토는 유물론적 세계에 잘 들어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가? 말 그대로의 그

⁹⁾ Taylor, R.(1996), pp. 114-115.

것은 세계에 없다. 그럼에도 그 인과적 힘은 백성에게 막강하지 않은가. 유물론에 잘 맞는 그 설명을 찾기는 쉽다. 정부는 백성의 위임을 받는 어떤 백성들의 모임이다. 원자 실재론에 따르면, 정부는 실은 그 어떤 백성들일 뿐이다. 모든 백성의 대리인인 그 백성들은 변하고 교체된다. 그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나아가서 국가의 동일성은 견지된다고 할 수 있다.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를 통칭한 정부의 역할은 알고 보면 실은 그 역할을 실현하는 백성들의 역할일 뿐이다.

정부는, 국가는 가장 거시적인 행위자이다. 그런데 그것이 행위자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룬 백성들이 행위자들인 덕분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인물들이 행위자인 것도 그것을 이룬 어떤 구성 원자들이 행위자인 덕분이라고 보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좋은 이유가 있을까? 한 국가가 정부, 그 백성들, 그 영토의 세 요소로 구성되듯이, 한 인물은 행위자, 그 원자들, 그 신체(몸)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 행위자는 그 구성 원자들 중에서 선정된 어떤 원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V. 주관적 인과성

흔히 행위자는 내면적인 자아(self) 또는 주관(subject)이라고 불려진다. 나는 그 자아를 그 몸을 이룬 어떤 원자들의 변화하는 한 모임으로 본 셈이다. 정부의 중요한 기능은 합리적인 법적 명령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물론 그 법은 자연법(natural law)이 아닌 실정법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자연법과 모순할 수는 없다. 유물론적 세계의 어느 구성원도 자연법을 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결심, 작심 및 의욕하고 동작을 행하는 행위자는

마음의 합리적 명령을 결정하고 집행하지만 결코 인과적 자연법칙을 위반할 수는 없다. 자연법칙은 항상(恒常)적이다. 따라서 그 법칙에는 특수한 행위자인 자아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諸法無我). 그런데 행동은 그 자아의 주권(主權)적 결정인 의욕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그 행동은 법칙적인 항상성을 갖지 못할 듯하다(諸行無常). 그러니까 법칙적 인과과정에 무법칙적인 합리적 자아의 의욕과 행동이 있다는 것은 모순처럼 들린다.

그러나 세계는 기초적 원자들의 세계일뿐이고 그 세계모습은 불확정적인 기회들의 법칙적 결과라는 것, 그리고 유물론적 자아는 원자들의 불확정적인 모임, 그러니까 실은 기회들의 결과라는 것을 반성적으로 종합하면 그 외양적 모순은 해소될 것 같다. 나는 모든 정신성이 물질성이고 그 인과적 흐름은 법칙적이라고 본다. 물론 그 법칙은 불확정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신유형이 물질유형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우리는 마음을 작사 작곡하고 연주를 행하는 언어 행위를 하는 자이다.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결심과 의욕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정신 상태를 특정한 명제내용을 갖는 욕망과 믿음으로 변별해서 서술하는 언어행위는 어떤 명제적 결심과 의욕에 이르려는 합리적인 규범적 평가 행위이다. 인과의 일반적 역할을 빌어 그런 평가적인 능동적인 자기 서술 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길은 정신의 행위자 개념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상사는 모두 인과와 인연의 고리에 매여 있다. 모든 사물과 사건은 모든 세상사를 포괄하는 그 촘촘한 인과망의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그 무엇을 일으킨다. 인과(causation)의 기본개념은 일으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저 일어나고 일어나는 일들뿐이라면 인과와 인연은 신비사항으로 남아버릴 것이다. 세상사는 일으키고 일으키는 그물망에서 결정론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인과적 세계관이다.

일으킴의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경험사례는 무엇일까?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공이 내 코와 충돌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곧바로 코피가 흐르는 일이 일어났다. 그 앞일이 그 뒷일을 일으켰다고 우리는 추론할 것이다. ‘동일한 원인에는, 동일한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원리이다. 여기서 언급된 ‘원인’과 ‘결과’는 유형(type)이지 사례(token)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여타조건이 같으면, 동일한 유형의 원인은 동일한 유형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인과개념에 따른 개념적 진리인 셈이다. 그것은 인과관계가 결정론적 법칙을 함축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야구공의 충돌에는 여타 조건이 같으면 그런 그런 코피의 흐름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을 그 인과적 사실은 함축한다.

야구공이 코피를 일으켰다는 인과적 앎은, 알고 보면 경험사례에 근거한 추론에 의한 것이다. 이보다 기초적인 직관에 의한 인과적 앎의 사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세상사가 인과그물에 연줄연줄 엮여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당이므로 이 의문은 더욱 의미롭다. 내가 보기에, 행위자 원인과 주관적 인과에 관한 앎이 이 의문을 의미롭게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이다. 글을 쓰는 나의 행동을 가져온, 당장 글을 쓰겠다는 나의 의욕을 일으킨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은 추론이 아닌 직관에 의한 앎이다. 나의 의욕은 나에게 일어난 욕망과 믿음 때문에 내게 일어난 어쩔 수 없는 법칙적 결과임을 직관은 부정한다. 그것은 내가 일으킨 것이라는 앎은 직관적으로 자명하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의도적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윤리의식이 직관적으로 올바른 태도인 것이다.

주관적 인과성도 결정론적 법칙을 함축하는가? ‘여타 조건이 같으면, 나와 같은 모든 인물은 당장 글을 쓰겠다고 의욕한다’는 언뜻 그럴듯하지만 받아들일만한 것은 못된다. 무엇보다도 ‘나와 같음’은 유형적인 일반성을 떨 수 없기 때문이다. 주관적 인과성은

유형적으로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물질적 환원으로의 길을 만들지 못한다. 유형적 일반성을 갖는 객관적 인과성, 정확히는 인과적 역할과 기능만이 정신성을 물질성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재권의 환원적 설명에서 필수적인 정신개념의 정의는 객관적 인과 기능을 빌어쓰는 것이다. 한 개념이 인과적 역할을 빌어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서술하고 파악하는 상태 또는 속성유형이 실은 인과적 추론에 의해 알려지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느끼는 감각 현상적 상태들의 물질적 환원으로의 길이 이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까닭은 그 현상적 상태들이 인과적 추론이 아닌 직관적 느낌에 의해 알려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그 현상적 정신 개념은, 그 의미는 그 인과적 역할에 의해 정당하게 분석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환원적 모형으로는 현상적 유형의 환원은 가능하지 않다.

합리성은 법칙성과 흔히 대비된다. D. 데이빗슨이 지적하듯이 합리적인 인과적 설명과 법칙적인 인과적 설명은 그 관심이 서로 다르다. 여기서 ‘합리적’과 ‘법칙적’은 설명적 관심에 대한 서술어이다. 그러나 나는 설명의 인식론이 세계의 존재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합리적’과 ‘법칙적’도 설명되는 사건들의 존재성에 그 차이를 두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한 인과의 주관성과 객관성은 바로 그 인과의 ‘설명적’ 합리성과 법칙성의 존재론적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다.

이 글이 받아들인 유물론은 하향적 인과성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한 행위자는 구조적으로 운동하는 최소 원자들의 한 모임이며, 인과적 흐름에 따른 변화성태를 겪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유물론은 인과관계가 법칙적임을 부인하는가? 미시적인 실질적 세상사의 기회들이 불확정성을 남기는 확률적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행위자 원인의 주관적 개념이 오히려 더 빛나게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행위자라는 것은 결코 유명무실(有名無實)한 개념일 수 없다.

참고문헌

- 김재권(2007), 『물리주의』, 하종호 옮김, 아카넷.
- 김선희 외 9인(2008), 『김재권과 물리주의』, 아카넷.
- Amstrong, D.M.(1983), *What is a law of Nature?*, Cambridge Univ. Press
- Davidson, D.(1987), “Problems in Explanation of Action”, *Metaphysics and Morality*, ed. P. Pettit, Basil Blackwell.
- _____ (1980), *Essays on Action and Events*,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J.(2005), *Physicalism, or Something Near Enough*,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erricks, T.(2001), *Objects and Persons*, Oxford University Press.
- Papineau, D.(2002), *Thinking about consciousness*, Clarendon.
- Searle, J.(2001) *Rationality in Action*, MIT Press
- Quine, W. V. O.(1969),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Columbia University Press.
- Taylor, R.(1996), *Action and Purpos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성균관대학교

Email: seolchon@yurim.skku.ac.kr